

미디어아트·공예·도자기...수묵, 경계 너머로 스며들다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오채찬란 작품의 향연...31일까지 열악한 전시·관람환경...목포문예회관 주전시관 활용 아쉬워

장르의 경계가 사라졌다. 전통적인 수묵 작품은 물론이고, 창의적으로 해체되고 재해석된 작품들은 '수묵'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1일 개막해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 (예술감독 이진수-31일까지)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보였다. 하지만 대규모 미술행사인 비엔날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다소 적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메인 전시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은 열악한 전시 환경으로 작품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퇴색시켜버리는 데다 예술감독이 기획 의도를 구현하며 공간을 구성하기도 어려워 향후 전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여 작품인 이상용의 '운명', 보성 대원사에 있는 법정스님의 글씨와 그림 등을 가져와 꾸민 법정스님의 방도 눈길을 끈다. 이만희·이종상·이승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전시에 무게감을 더한다.

본전시관 전시를 열고 닫는 건 지역 미디어 아트작가들이다. 이이남 작가는 전시장 입구의 영상 작품과 함께 '박연폭포'를 전시장 로비에 내걸었으며 박상화 작가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목표판타지아-사유의 정원'을 통해 전시를 마감한다.

본 전시의 경우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작품을 보여주려해 관람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감상을 방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통로에 '방치'되듯 전시된 영상 등 일부 작품들은 제대로 된 감상이 어려웠다.

흥미로운 전시공간은 비엔날레 3관으로 활용된 심상소학교(유달초등학교)다. 100년 넘는 시간을 견뎌온 '장소'가 갖고 있는 매력에 한껏 돋보이는 나무 바닥의 전시장에서는 '신세대의 도원경'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의 재기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2층 강당 넓은 공간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서는 수묵을 다채롭게 해석한 작품들이 쏟아져 인상이었다. 당초 해외의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무산되자 대신 18명 작가의 36작품을 18분 분량의 영상 작품으로 제작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영상으로 직접 작곡한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비엔날레 4관과 5관으로 활용된 진도 윤림산방은 남종화의 텃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공간이다. 차로 50여분 이동해 도착한 윤림산방은 붉은 감이 열린 감나무와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중이었다.

'생활 속의 수묵'을 지향한 4관(남도전통미술관)은 '물', '불', '돌', '바람'을 주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알루미늄 판넬 위에 양복천을 입혀 그 위에 그림을 그린 손문일 작 '관계', 코카콜라 글씨가 새겨진 화병, 나이기 운동화 등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들을 소재로한 유의정의 청자 작품, 한지를 문쳐 일

비엔날레 4관과 5관으로 활용된 진도 윤림산방은 남종화의 텃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공간이다. 차로 50여분 이동해 도착한 윤림산방은 붉은 감이 열린 감나무와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중이었다.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3전시관인 유달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전 세계 작가 18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대형 영상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이 화면에 붙인 이진우의 '무제' 등이 발길을 붙잡는다.

마지막 5관인 소치미술관에서는 이영희 등 디자이너들의 공예, 도자기, 의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바로 이어지는 소치 허련 전시 공간에서는 '남종화의 원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그밖에 6관(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는 '묵연(墨緣)-상생과 화합의 수묵 이야기'를 주제로 국내외 69명의 국제교류전 및 영호남교류전이 펼쳐진다.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공식 홈페이지에 VR전시관, 총감독이 작품을 소개하는 수묵영상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목포문예회관을 계속 주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조직위측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전

시들은 공간 레이아웃에 따라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고, 작품 자체를 돋보이게 하지만 문예회관은 오히려 장소가 제대로 된 전시를 방해하고 있어 문제다. 목포문예회관을 계속 활용할 경우 대안을 찾고, 광양로미술관을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 비엔날레전용관을 짓는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글 사진 김미은 기자 mekim@



유의정의 '청자 작품 연작'



윤석남 작 '사람과 사람 없이'

하 나 기 -의 아름다움

윤병학전 31일까지 문예회관

한글날이 있는 10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조형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윤병학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전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Sing Language 한글 자모의 변형과 조형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의 형태, 구조 등 한글의 문자적 아름다움과 자모의 연속적인 변화로 리듬과 율동을 표현한 회화 작품 25점을 만날 수 있다.

한글의 조형적 요소를 탐구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해 온 윤 작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분해·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한글추상의 조형미를 화사한 색감과 함께 선보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문자나 기호적 요소를 그리고 한글의 자모, 영어의 알파벳은 우리 사회의 혼재된 양상과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작가는 한글 자모의 균형과 연속성의 변화를 통해



'Sing Language-chaos 21-0-6'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기호들이 모여서 생기는 질서와 조화를 화면에 담아낸다

21회의 개인전과 300여회가 넘는 기획·그룹전에 참여한 윤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사대현 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점·선·목소리...화순 경북미술원 입주작가 협업전

11월 7일까지 장성 아인 미술관

화순 북암리 경북초등학교 폐교에 등지를 둔 화순 경북미술문화원은 매해 레지던시를 운영,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올해는 박영수·이정은·아란 작가가 입주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경북미술문화원은 특히 첫 전시는 입주작가들의 콜라보 레이션을 통해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7일까지 장성 아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옐로우 사운드(YELLOW SOUND)'전은 3명의 작가가 함께 마련한 협업전이다.

작가들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2개월간 다양한 드로잉 실험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다. 드로잉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점'은 작가들의 생각이 담긴 '음성'으로, '선'은 실 전화기에서 시작해 점차 갈대기와 파이프 등의 오브제로 확장됐다. 여기에 작가들의 목소리 사운드가 더해져 완성된 작품은 작가와 관객, 너와 나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소통을 담고 있다.

작가들은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일상적이며 특별한 소통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형 전시가 아닌 직접 관람객이 체험하는 기획으로 여덟집 종이컵 전화기처럼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함께 찾는 가족, 친구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등 말들을 전하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작품은 '공간'에 대한 탐색과도 관련이 있다. 폐교였지만 작가들의 레지던시 작업 공간이 된 경북미술문화원과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북암문화공



박영수·이정은·아란 작 '옐로우 사운드'

간으로 변신한 장성 아인미술관 두 공간의 연결에 의미를 부여해 제작했다. 한편 장성 아인미술관은 황룡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와 미술관,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집숍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